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13, Vol. 19, No. 3, 457~485.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문화합의이론을 통한 범주의 발견

유 민 봉 심 형 인†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본 연구는 기존의 Hofstede(1980, 1991), Schwartz(1992, 1994), Trompenaars & Hampden-Turner (1997), House et al.(2004) 등과 같은 국가 간 비교문화연구가 한국과 같은 비서구권 문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발견하여 범주화 및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기존의 국내연구들은 연구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한 발견적인(heuristic) 접근방법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보다 타당하게 기술할 수 있는 범주를 찾기 위해 문화합의이론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유목록에 대한 빈도분석, 파일분류, 다차원척도법 및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문화는 '공적자아인식, 집단중시, 온정적 인간관계, 위계성 중시, 결과중시' 라는 5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한국문화의 특성에 대한 이러한 범주의 발견은 앞으로 한국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응용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한국문화, 문화합의이론, 자유목록, 파일분류

† 교신저자 : 심형인, 성균관대학교 리더십과공공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
E-mail : hisim@skku.edu

www.kci.go.kr

한 국가의 문화적 특성은 그 국가와 국민을 이해하는데 있어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문화에 대한 연구는 1960-70년대에 Kluckhohn & Strodtbeck(1961), Douglas (1970)에서부터 시작하여 근래 Hofstede(1980, 1991, 2001), Schwartz(1992, 1994), Trompenaars & Hampden-Turner(1997), House et al.(2004)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가별 문화의 차이에 대한 Hofstede의 연구[1]는 이전의 연구들이 국가 간 문화 차이에 대해 개념적 차원에 머물렀던 것과는 달리,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측정하여 실증적으로 문화차이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당시에 이론의 보편성을 강하게 믿고 있던 심리학자를 비롯한 사회과학자들의 인식 전환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Triandis, 2004).

Hofstede(1980)의 연구는 이후 보다 대규모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Schwartz(1992, 1994), Trompenaars & Hampden-Turner(1997), House et al.(2004)의 국가 간 비교문화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Hofstede 이후 발표된 이들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실제 대규모 설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범 국가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화차원과 국가 간의 문화 차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상대적 문화성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개별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이들은 모두 서구권 국가의 시각에서 문화차원을 개발하고 설문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비서구권 국가의 문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더 큰 한계가 있다(Gooderham & Nordhaug, 2001; Roberts & Boyacigiller, 1984).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 이들 연구에 의하면 중국,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권역으로 분류되어져 권위주의, 집단주의, 특수주의 등을 가진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국가로 설명되어지고 있다(House et al., 2004; Schwartz, 1992). 하지만 서구 문화권에서 인식하는 바와 달리 한국을 비롯한 한·중·일 3국의 학자들과 국민들은 직관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서로의 문화가 다르다고 인식한다(찐언췌, 2000). 3국이 서로를 보는 시각은 예를 들어 한국은 '빨리빨리', 중국은 '만만디(慢慢地)', 일본은 '조심조심'으로 각 나라의 특성을 다르게 인식한다(Ibid). 즉,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서구권에서 개발된 보편적 문화 척도에 의하면 3국은 집단주의 문화,[2] 유교 문화로 묶어서 설명되지만(House et al., 2004), 3국 각각에는 집단주의나 유교문화로써 설명할 수 없는 문화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보편적 문화 척도가 개별 국가의 문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중국학자들은 자국의 문화를 그들의 시각에서 보다 타당하게 측정하기 위한 내부적·특수적 접근(emic approach)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1987년에 홍콩의 중국학자들이 40문항으로 된 중국가치조사(Chinese Values Survey, CVS)를 개발하여 타당화 작업과 측정을 시도하였고, 이후 Yau(1994)는 Kluckhohn & Strodtbeck(1961)이 제안한 문화차원을 확장하여 12개 문화차원의

1) Hofstede(1980, 1991, 2001)의 연구는 세계 여러 국가를 권력거리,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여성성, 불확실성 회피, 단기지향성-장기지향성의 다섯 차원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국의 문화를 점수화 하여 문화에 대해 상대적인 특성과 의미 있는 차이를 제공한다.

2) Hofstede의 개인주의 점수에서 한국이 18, 중국이 20, 일본은 46이다. 이를 순위로 바꾸면 한국은 76개국 중에서 65위, 중국 58위, 일본 35위이다.

www.kci.go.kr

설문지(CVS)로 개발하였다.

한국학자들 역시 자국문화에 대한 다양한 분류를 시도하였고(김경동, 1993; 송호근, 2003; 정수복, 2007; 최재석, 1994), 대표적으로 가족주의, 연고주의, 온정주의, 권위주의 등 한국인이 직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용어로 개념화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연구자의 경험과 직관을 동원한 발견적인(heuristic) 접근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객관성과 과학성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Kweon, 2003). 즉, 앞서 언급한 Hofstede 등 서구권 학자들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방대한 DB를 구축하여 문화차원별 각국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에 비해 한국의 연구는 발견적 방법에 머물고 있어, 이들이 제안한 개념과 용어를 적용하여 이론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3]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문화에 대한 대다수 실증연구는 서구권에서 개발된 척도들을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사회의 문화를 이렇게 하나의 권역 문화권으로 설명하는 경우에 한국의 문화적 독자성을 명확하게 부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문화를 중요한 변수로 활용하여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특성을 개념화하고 척도화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이 논문은 한국인의 생활과 삶 전반에 배태되어 있는 문화적 특성을 밝히는 내부적·특수적 접근을 취하되,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범주화 및 개념화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방법론적으로는 심층면접 및 기존 문헌의 내용분석과 같은 질적 접근방법과 문화합의모형에서 채택하고 있는 빈도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과 같은 양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였다.

문화연구 경향 및 필요성

국가 수준의 문화를 비교하기 위한 보편적 문화범주를 제안한 대표적인 학자는 앞서 언급한 Hofstede(1980, 1991), Schwartz(1992, 2004), Trompenaars & Hampden-Turner(1997, 2001), House et al.(2004) 등이 있다.[4] 이들 연구는 국가 내지 사회 수준의 문화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대규모 설문조사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널리 인용되는 Hofstede의 경우 다국적 기업 IBM의 세계 각국 지사에 근무하는 종업

3) 일부 실증연구를 시도한 국내학자들이 있지만(김경민·박동건, 2011; 김혜진, 2012; 유성경·유정이, 2000), 이들은 문화차원별로 한국의 점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분석단위를 개인으로 하여 개인의 문화적 성향과 개인행태의 관계를 밝히는 논문이다. 특히 문화차원 중에서도 개인주의-집단주의가 절대적이고 적용한 측정도구(설문)는 Triandis(1995)와 Singelis et al.(1995)가 개발한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4) 이들 학자들의 연구 외에도 세계가치관조사(Word Values Survey)는 6개 대륙 8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 문항을 사용하여 1980년부터 약 5년 주기로 가치에 대한 조사를 DB화하여 연구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사는 '문화'를 핵심 주제로 한 것이 아닌 '가치'에 기반을 둘 조사라는 점에서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 중국, 일본, 대만 4개국을 대상으로 한 EASS(East Asia Social Survey)에도 문화를 측정하는 항목이 있지만, 이 역시 문화를 하나의 하위요소로 측정하고 있으며, 문항 구성의 이론적 근거가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www.kci.go.kr

원을 대상으로 일에 관한 가치(work related values)를 측정한 것이고,[5] Schwartz의 문항은 문화적 가치를 측정한 것이지만 표본이 학생과 교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연구를 국가수준의 문화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Trompenaars & Hampden-Turner의 연구 또한 교육에 참여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고[6] 가치보다는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도구의 타당성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Hooghiemstra 2003: 61).[7] GLOBE 연구는 측정도구로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고, 가치("What should be...?")와 현상("What is ...?")을 모두 측정하였으며, 표본을 금융·식품·통신 등의 산업 종사자로 확장시켜 기존 연구에 비해 대표성과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GLOBE 연구 역시 표본을 기업의 중간관리자로 한정하였고,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문화차원을 제시하고 국가별 각 차원의 점수와 문화권[8] 정도만 제시할 뿐 개별 국가의 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한국 학자들의 연구는 한국사회의 특수한 문화를 연구대상으로 개념적 차원의 범주화를 시도한 발견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한국문화 연구는 주로 사회학 분야에서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최재석(1994)은 "한국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생활양식"을 근거자료로 가족주의, 감투지향의식, 상하서열의식, 친소(親疎)구분의식, 공동체지향의식으로 구분하였다. 김경동(1993)은 사회조직에 초점을 맞추어 위계서열적 권위주의, 연고위주의 집합주의, 인정주의, 의례주의적 도덕성으로 분류하고 유교적 전통의 영향임을 주장하였다. 2000년대 들어 송호근(2003)은 한국인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평등주의, 의사사회주의, 낙관주의, 권위주의, 이기적 자조주의, 독단주의, 가족주의, 연고주의, 엘리트주의, 국가중심주의로 나누었고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수복(2007)은 시기적으로 개화기 이전의 종교사상과 문화전통에서 유래한 보다 근원적인 문화적 특성[9]과 19세기 후반 서양의 근대성 영향으로 파생되어 나타난 문화적 특성을 구분하고, 전자에 현세적 물질주의, 감정우선주의, 가족주의, 연고주의, 권위주의, 갈등회피주의를, 그리고 후자에 감상적 민족주의, 국가중심주의, 속도지

5) Hofstede의 5가지 문화적 차원은 초기 조사 대상이었던 IBM사의 기업차원에서 지향하는 일에 대한 가치와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설문 문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의 문화적 가치를 묻는 문항보다 조직 맥락과 관련된 문항이 주를 이룬다.

6) 개발도상국의 기업 문화의 경우 본사 소재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김유경, 2004) 조사결과를 그 기업의 문화가 아닌 사회나 국가의 문화로 이해하고 응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7) THT의 문화차원에서 특히 Parsons의 행동유형 차원은 서양의 근대성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특수주의, 집단주의, 정서적·확산적·귀속적 문화를 근대성과 반대되는 열등한 문화로 인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Parsons & Shils, 1951).

8) House et al.(2004)의 GLOBE연구의 경우 한국을 유교문화권에 포함시킨다. 하지만 각주 4)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중국, 일본만 보더라도 서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9) 문화적 차원을 분류하면서 앞의 학자들이 각각 생활양식, 사회조직의 특성, 사회심리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수복은 이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문화적 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2007: 98).

www.kci.go.kr

상주의, 근거 없는 낙관주의, 수단방법 중심주의, 이중규범주의를 포함시키고 있다.[10]

국내학자들이 제시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서양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문화차원에 의해 분류해보면 표 1과 같다. 이는 서양 학자들의 보편적 문화차원을 세로축으로 하여 국내학자들이 주장한 문화범주를 교차시켜 구성한 것이다. 몇 가지 특이점을 보면 첫째, 권력거리, 개인주의-집단주의, 보편주의-특수주의 등 단일 문화차원에 다수의 한국문화 특성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경우 권력거리, 개인주의-집단주의, 보편주의-특수주의 등을 단일 차원으로 인식하기보다 그 안에 개념적 차이가 있는 하위 구성요소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서양 학자들이 분류한 차원으로 국가수준의 문화를 측정하였을 때 종합 점수를 기준으로 문화권을 분류함으로써 하위요소의 차별적 특성을 간과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다. 즉, 서양의 시각에서는 '집단주의' 혹은 '특수주의' 라는 하나의 차원일 수 있지만, 한국의 시각에서는 그 안에 다른 하위요소가 있고 이들을 개별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여야 한국의 문화를 보다 타당하게 접근하며 한국·중국·일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한국 학자들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화적 특성이라고 본 것 중에는 기존 보편적 문화 분류에 포함되지 않거나 적절하게 설명되지 못하는 개념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연고주의·온정주의·가족주의·친소구분의식 등은 외국 학자들이 분류한 차원 중에서 다수의 차원에 중복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고, 낙관주의·이기적 자조주의 등은 부분적으로 개념의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11] 도덕적 의례주의·속도지상주의 등의 개념은 어떠한 문화차원에도 포함시키기 어렵다. 즉,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화적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서양 학자들의 보편적 차원으로는 측정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양 학자들의 보편적 문화 범주에 의한 한국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문화차원과 측정문항을 이용한 실증연구(김경민, 박동건, 2011; 김혜진, 2012; 유성경, 유정이, 2000; 윤상연 등, 2013; 차민정 등, 2012)가 국내에서 계속 진행되는 것은 이들 연구를 반박하고 대체할 과학적 연구가 없기 때문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 학자들의 연구는 체계적인 연역적 추론이나 실증자료를 근거로 한 귀납적 발견이 아니다. 정수복(2007)은 "나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2개의 문화적 문법을 제시(107쪽)"한 것이고 또한 "문법의 추출 과정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론적 입장이 일정하게 작용(108쪽)"하였다고 언급하였으며, 김경동(1993) 역시 "시론적 탐색(135쪽)"이라고 연구의 한계를 밝혔다. 이와 같이 한국 학자들이 제시한

10) 정수복(2007)은 전자를 근본적 문법 후자를 파생적 문법으로 명명하였다. 이 외에도 조긍호(2003)는 집단주의 차원에서 한국인의 문화적 심리현상을 깊이 있게 조명하였지만 집단주의 한 차원만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또한 행정학, 경영학 등의 분야에서 문화 차원을 분류한 연구가 있으나(백완기, 1991) 분석단위가 조직이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11) 이들은 모든 문제에 대해 환경에 순응하기 보다는 자신이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내부통제(Trompenaars & Hampden-Turner, 1997)의 분류로 일정부분 설명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설명일 뿐 충분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www.kci.go.kr

표 1. 외국 학자들에 의한 문화차원과 한국 학자들에 의한 한국사회의 문화범주

외국연구 / 국내연구	차원 분류	최재석 (1994)	김경동 (2004)	송호근 (2003)	정수복 (2007)
Hofstede (1980, 2001) Schwartz (1992, 2004) Trompenaars & Hampden-Turner (1997) House et al. (2004)	권력거리* <11-104중 60점> (위계성)**	• 상하서열의식	• 위계서열적 권위주의	• 권위주의 • 독단주의 (토론의 부재) • 국가중심주의[12]	• 권위주의 • 갈등회피주의 • 국가중심주의[22]
	집단주의 - 개인주의* <9-90중 18점> (귀속성-자율성)*** (공동체주의-개인주의)****	• 가족주의 • 친소구분의식[13] • 공동체지향의식	• 연고위주의 집합주의 • 인정주의	• 가족주의 • 연고주의 • 엘리트주의[14]	• 가족주의 • 연고주의 • 감상적 민족주의
	남성성 - 여성성* 5-95중 39> 성과지향주의**** / 인간지향주의**** / 양성평등주의**** / 적극성****		• 인정주의		• 감정우선주의 (여성)
	불확실성 회피* <8-112중 85>				• 갈등회피주의[15]
	단기지향 - 장기지향* (미래지향주의)**** <23-118중 75>				• 현세적 물질주의 (단기)
	보편주의 - 특수주의***	• 가족주의 • 친소구분의식	• 연고위주의 집합주의 • 인정주의	• 가족주의 • 연고주의	• 가족주의 • 연고주의 • 이중규범주의[16]
	부분성 - 전체성***				
	중립 - 감정*** <32-91 중 65>				
	성취 - 귀속*** <4-69 중 20>	• 감투지향의식		• 엘리트주의	
	선형 - 원형 (시간관)***				
	통제-조화** 내부통제 - 외부통제*** <33-88 중 72>			• 낙관주의[17] • 이기적 자조주의[18]	
서양 학자들의 분류에 포함하기 어려운 한국문화의 특성			• 의례주의적 도덕성[19]	• 평등주의[20] • 의사사회주의[21] • 낙관주의 • 이기적 자조주의	• 감상적 민족주의[22] • 속도지상주의[23] • 근거 없는 낙관주의 • 수단방법 중심주의[24]

* Hofstede(1980, 2001).

** Schwartz(1992).

*** Trompenaars & Hampden-Turner(1997).

**** House et al.(2004).

www.kci.go.kr

문화차원은 개념화가 미흡하고 동일 현상에 대해 학자마다 다양한 해석을 하는 등 학문적 공감을 얻는 데는 부족한 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문화연구의 한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합의이론을 응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한국문화의 특성과 범주를 발견하고 개념화하여 그 학문성과 설명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국가를 어른 내지 아버지와 동일시하여 국가의 가부장적 역할을 의미한다(송호근, 2003). 정수복(2007)도 이와 유사하게 국가가 견인차가 되어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13) 이들은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며, 집단 중에서도 외집단 보다는 내집단을 그리고 이들 사이에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최재석, 1994) 집단주의와 특수주의 모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4) 엘리트가 하나의 서클(집단)을 형성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로서 연고주의와 학력주의의 결합으로 본다(송호근, 2003).

15) 변화보다는 사회적 질서와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며 갈등보다 조화와 합의를 강조한다. 이는 윗사람에 대한 권위를 중요하게 보는 권위주의 문화의 소산으로 갈등은 병리적인 것이며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무질서를 낳는 것으로 본다(정수복, 2007).

16) 상황에 따라 가치판단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겉으로는 보편적 기준을 주장하면서 속으로는 자기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특성을 의미한다(정수복, 2007).

17) 비합리적이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하면 된다'는 분위기 속에 성사를 위해 비리와 부정도 서슴지 않는다(송호근, 2003).

18) '내 것 내가 벌어서 먹을 테니까 너는 네가 벌어서 먹으라'는 사고방식으로 능력 없는 사람, 노동력 상실자, 무능한 사람을 돕는 일에 인색하다(송호근, 2003).

문화합의이론

문화합의이론(Cultural Consensus Theory)은 일련의 방법론적 가정과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공동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가 무엇인지를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이론이다. 문화합의이론은 문화인류학 또는 인지인류학으로 분류되는 학자들이 개발한 것으로,

19) 안으로는 온정적 집합주의로 움직이지만 겉으로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럴듯한 도덕적 명분을 내세우는 습관으로 속으로는 아무리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겉으로는 보편적 구실을 제시하는 명분과 의례를 강조한다(김경동, 2004).

20)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 즉 성공은 모종의 비합리적 수단이 동원되었다고 보고 성공한 사람에 대한 존경을 철회한다(송호근, 2003). 따라서 Schwartz(1992)나 House et al.(2004)이 사용한 평등주의와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21) 자원분배 과정에서 능력과 업적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반발하며, 업적 여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나누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송호근, 2003).

22) 한국, 민족적 자존심을 개인적 자존심과 밀접하게 연결시켜 애국심을 발휘함과 동시에 역사에 대해 열등감과 우월감이라는 양가적 감정을 가진다. 스스로를 객관화해보는 능력이 부족하여 자기중심적인 측면이 있다(정수복, 2007).

23) 빨리 후진국 상태를 벗어나야 된다는 역사적 강박관념에서 시작되어 무엇이든 빨리하려는 속도숭배의 의식과 습관을 의미한다(정수복, 2007).

24) 성과만 좋으면 과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과지상주의적 사고로 목적달성만을 중요하게 본다. 또한 속도지상주의, 현세물질주의와 결합되어 목표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 즉, 현세의 부귀영화, 건강장수 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정수복, 2007).

www.kci.go.kr

‘문화’를 “다수가 상호학습하여 공유하는 지식 또는 정보”로 이해한다(D'Andrade, 1981; Weller, 2007: 339). 즉, 한 사회의 문화를 “그 속에 속한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규명하려고 한다(Ibid). 따라서 그 문화권에 속한 사람 즉, 정보원(응답자, informant)에 초점을 두며 해당 정보원이 연구대상의 문화를 얼마나 정확하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지에 관심을 가진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정보원들로부터 어떻게 (연구하고자 하는) 문화 정보를 얻어내고, 그들이 제공한 정보를 얼마나 신뢰하고 정확한 답으로 추론할 수 있는가?(Romney, Weller, & Batchelder, 1986: 314; 심재명, 2007: 47 재인용)”에 관심을 가지며, 일련의 질문(문제)을 만들고 이에 대한 정보원들의 응답을 통해 정확한 답(culturally correct answers)을 추론하고, 개별 정보원이 그 답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었는가를 추정하는 분석기법을 활용한다(Weller, 2007: 339). 이 때, 문화적으로 정확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정보원이 합의(consensus) 또는 동의하는(agreement)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정보원의 신뢰도(reliability)와 능력(competence)은 개별 문제에 대한 정보원의 실제 응답이 문화적으로 정확한 답과 얼마나 일치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Weller, 2007: 340).

문화합의이론은 연구대상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합의가 있다고 주장할 만한 문화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세 가지 기본 가정을 전제한다: 첫째, 정보원의 응답이 다른 정보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서로 상의하거나 집단 단위의 응답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동일한 주제에 동일한 난이도를 가진 질문이어야 한다. 즉 질문 문항이 한 주제의 영역에 한정되어야 하고 모든 문항에 걸쳐 아는 정도가 같아야 한다. 셋째, 질문에 대한 응답이 하나로 수렴되어야 한다. 이는 응답자들의 응답이 분산되지 않고 상당히 일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Weller, 2007: 340). 문화합의이론은 이상 세 가지 가정이 충족될 때 이론의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며, 정보수집에서 분석까지 일련의 과정을 그림 1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Borgatti, 1996; Horowitz, 2007: 50-57; Weller & Romney 1988).

1단계는 연구대상의 문화 영역에 포함되는 항목을 개발하는 단계로 개념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경계 안에 포함되는 항목을 생성하는 작업으로, 해당 문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관련 항목을 자유롭게 순서를 정해 나열하도록 하는 자유목록(freelist)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다(Horowitz, 2007; Keller & Loewenstein, 2011; Weller & Romney 1988).[25] 자유목록 방식은 개방형 설문(open-ended questions)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개방형 설문이 응답자를 주어로 하여 응답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것(예를 들어 ‘좋아하는’ 노래)이라면, 자유목록 방식은 응답자 개인이 속한 문화적 영역을 다루는 것(예를 들어 ‘알고 있는’ 노래)으로 주어가 보통 “우

25) 최근에는 문화합의이론이 문화에 대한 초기의 인류학적 연구에 국한하지 않고, 마케팅(Horowitz, 2007), 조직구성원의 협동(Keller & Loewenstein, 2011), 암발생요인(Chavez et al., 1995), 직업평판(Magana, Burton, & Ferriera-Pinto, 1995) 등의 영역으로 확장 적용되면서 항목개발을 자유목록 방식에 국한하지 않고, 기존 연구에서 이미 개발해 놓은 설문, 신문기사, 면접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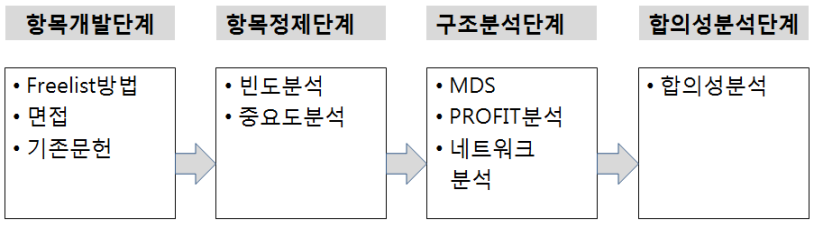

그림 1. 문화합의이론의 단계별 주요 분석내용

리나라(공동체, 마을) 사람들은"으로 시작한다. 또한 응답방식에 있어서도 전자의 경우 단문에서부터 긴 문장 서술까지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 단어나 단문으로 제한한다. 이 때 연구자보다 응답에 참여한 사람들이 관련 문화에 대해 더 적합하거나 타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참여자가 제시한 항목을 그대로 수용하며, 해당 문항이 문화적으로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응답에 대한 참여자들 사이의 동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자유목록 방식으로 문항을 생성할 때 참여자는 질문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2단계는 생성된 항목을 정제하여 문화영역을 대표하는 항목으로 축소하는 단계이다. 1단계에서 생성한 항목 중에서 문화영역을 더 잘 나타내는 중요한 항목으로 압축하는 과정으로서, 자유목록 방식으로 항목을 개발한 경우 빈도수 분석과 중요도 분석이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Anthropac(v. 4.98)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반응 비율(전체 응답자 중에서 해당 항목을 자유목록에 포함시킨 비율), 순위평균, Smith's S(빈도와 순위평균을 결합시킨 수치) 등을 고려하여 문화영역을 대표할 만한 항목들을 선정한다.

3단계는 해당 항목들 간에 어떠한 구조적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단계로서 항목 간 쌍대 비교 또는 세 항목을 1조로 한 비교 방식 등을 통해 항목 간의 유사성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수집한 다음, 다차원척도법(MDS, Multidimensional Scaling), PROFIT(property fitting) 분석, 네트워크 분석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항목 간의 구조를 분석하게 된다. 항목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위한 자료수집 방법 중에서는 파일분류(pilesort)와 3종 비교(triad) 방식이 대표적이다. 파일분류는 일반적으로 항목을 적은 카드를 항목 수만큼 만들어 의미가 유사한 카드끼리 분류하는 방식이고, 3종 비교는 세 개의 항목을 한 조로 제시하고 그 중에서 유사성이 가장 떨어지는 항목을 골라내는 방식이다(자세한 설명은 Borgatti, 1996).

마지막 4단계는 응답자 전체가 동의하는 문화가 있는가, 개별 응답이 전체 응답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항목별로 문화적으로 정의된 정답이 무엇인가를 추정하는 것으로, 이 단계를 합의성 분석(consensus analysis)이라 한다. 이 논문은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대표하는 표현을 선정하고 이들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한국문화를 범주화하는 것이 연구목적이기 때문에 문화합의이론이 제안한 분석단계 중에서 항목개발, 항목정제, 항목 간 구조분석 단계까지를 연구의 범위로 하였다.

www.kci.go.kr

방 법

이 논문은 한국문화를 보다 타당하게 기술할 수 있는 범주를 찾기 위해 문화합의이론이 제안한 일련의 분석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자유목록 방식을 통해 한국문화를 나타내는 개념들을 확보하여, 이를 대표성이 높은 항목으로 압축·정제시키고, 파일분류를 통한 자료수집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항목들 간의 구조와 범주를 발견하였다.

조사대상(참여자)

자유목록(freelist)

자유목록 방식을 통한 자료 수집은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43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2년 5월-2012년 6월에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다수의 한국 사람을 만나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유학생, 외국어 강사, 회사원, 연구원, 사업가, 국제결혼이주자, 교사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필리핀, 타이완, 일본, 중국, 이란 등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남성이 22명, 여성이 21명이었으며, 연령별로 20대 26명, 30대 13명, 40대 3명, 50대 1명이었다.

파일분류(pilesort)

파일분류는 항목개발과 항목정제 과정을 거쳐 선정한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분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내국인 37명을 대상으로 2012년 7월-2012년 8월에 진행하였다. 37명은 남성이 18명, 여성이 19명이었으며, 연령별로 20대 12명, 30대 15명, 40대 6명, 50대 4명이었다.

조사방법 및 절차

이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항목을 설정하기 위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자유목록 방식에 의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자가 참여자에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한국(한국사람)의 특성을 하나 또는 몇 개의 단어로 적어주십시오”라는 지시문을 제시하고 10개 항목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확보한 항목은 381개였으며, 하나의 단어 또는 몇 개 단어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영어와 한국어의 비중이 7대3의 분포였다. 이들 항목은 어휘나 표현을 달리 하였으나 의미가 같다고 판단되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되, 자유목록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Anthropac)가 한글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을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hurry,’ ‘in a hurry,’ ‘rush,’ ‘빨리빨리’는 모두 ‘hurry’로, ‘어른 섬김’, ‘장유유서’, ‘상사존경’, ‘respecting olders and seniors,’ ‘respectful to the elderly and superiors’는 ‘respecting olders’ 등으로 묶었다. 이러한 정리과정을 통해 159개의 항목이 생성되었고, 이를 Anthropac(v. 4.98)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연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63개의 항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항목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파일분류 방식을 적용하여 자료를 새롭게 수집하였다. 이를 위해 63개의 항목에 대해 각각 앞면에는 단어를 뒷면에는 일련번호를 표기한 카드를 만들었다. 63개의 단어에 대해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분류할 수 있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자가 1명씩 개별적으

www.kci.go.kr

로 만나 63개의 카드를 제공하고 개념이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도록 요청하였다. 참여자들이 바뀌면 카드의 순서를 무작위로 섞어 다시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카드순서에 의한 분류의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그룹의 수는 제한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그룹에도 포함시키기 어려운 경우 개별 항목으로 남겨놓는 것을 허용하였다. 조사자는 참여자의 분류 작업이 끝난 것을 확인한 후에 묶음(파일, pile)별로 어떠한 기준에서 분류하였는지를 참여자에게 묻고 기록하였으며, 이렇게 수집된 37명의 파일분류 자료는 문화합의분석의 또 다른 소프트웨어인 UCINET6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UCINET6에서 제공하는 분석도구 중에서 다차원척도법과 NetDraw라는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결 과

문화영역 항목개발 및 정제

자유목록은 문화합의분석에 포함될 항목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응답자(정보원)가 제공한 항목의 빈도와 순위이다. 빈도는 해당 항목을 몇 명의 응답자가 자유목록에 포함시켰는가이고 순위는 목록의 몇 번째에 포함시켰는가로 항목의 중요성(salience)을 추정할 수 있다. 빈도가 많고, 목록의 앞에 놓일수록 문화영역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Borgatti, 1996; Horowitz, 2007: 51). 표 2는 Anthropac(v. 4.98)을 이용하여 자유목록을 분석한 것으로 빈도, 반응 비율(전체 응답자 중에서 해당 항목을 자유목록에 포함시킨 비율), 순위평균을 보여준다. 마지막 열의 Smith's S는 빈도와 순위평균을 결합시킨 항목 선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이 연구에서는 '빈도'와 'Smith's S'를 기준으로 각각 정렬하여 두 기준 모두 상위 70위(빈도가 2 이상인 항목) 이내에 있는

표 2. 자유목록 빈도 및 중요도 분석 (빈도수 상위 10개 항목)

항 목(items)	빈도	반응비율(%)	순위평균	Smith's S
1 friendly	18	42	2.889	0.327
2 hurry	16	37	3.188	0.287
3 hardworking	13	30	4.385	0.190
4 polite	12	28	4.250	0.189
5 proud of Korea	10	23	6.900	0.094
6 conservative	9	21	4.889	0.134
7 patriotic	9	21	5.444	0.115
8 hospitable	8	19	3.750	0.132
9 appearance	7	16	6.286	0.083
10 emotional	6	14	6.667	0.049
11위부터 생략				

www.kci.go.kr

표 3.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는 최종 항목

번호	항목	번호	항목	번호	항목
1	정(情)	22	보수적	43	열정적
2	친근한	23	가부장적	44	충동적
3	협동	24	서열 중시	45	잘 뭉치는(단결)
4	대세를 따르는	25	체면	46	치열한
5	타인과 비교	26	배려(도와주는)	47	타집단 배타적
6	가재는 게 편	27	대충대충	48	경쟁적
7	모호한 태도	28	서두르는/성급한	49	유행 민감
8	명분 중시	29	의사표현이 소극적	50	외모 중시
9	관계 중시	30	타인에게 관심 가지는	51	우회적 의사표현 (돌려서 말하기)
10	학연/지연	31	빨리빨리	52	눈치
11	약속(계획) 쉽게 변경	32	지위 중시	53	계산적
12	모방	33	계층적	54	간섭하는
13	시기(사촌이 땅사면 배아픔)	34	성공 지향	55	연장자 우대
14	이미지 중시	35	겸손	56	돈(물질) 중시
15	상황(정황) 고려	36	관행 중시	57	여유 없는
16	타인시선 의식	37	끼리끼리	58	집단 압력(peer pressure)
17	융통성	38	바쁜	59	모임 (회식, 경조사, 동문회) 중시
18	가족(혈연)중시	39	직설적	60	의리
19	조화	40	고집 센	61	즉흥적
20	결과지향적	41	끈기	62	과시적
21	나이 중시	42	감정적	63	알아서(말하지 않아도) 챙겨주기를 기대

57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한편 이 논문은 자유목록 방식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문헌 검토와 심층면접 자료 분석 결과[26]를 종합하여 한국문화의 영역에 포함시킬 항목을 선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주 연구자는 분석에 참여한 대학원생 7명과의

26) 한국문화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990년대 및 2000년대에 한국문화를 주제로 발간된 교양 및 전문서적 21권에 대해 내용분석을 하였으며, 28명(20대 7명, 30대 14명, 40대 3명, 50대 4명)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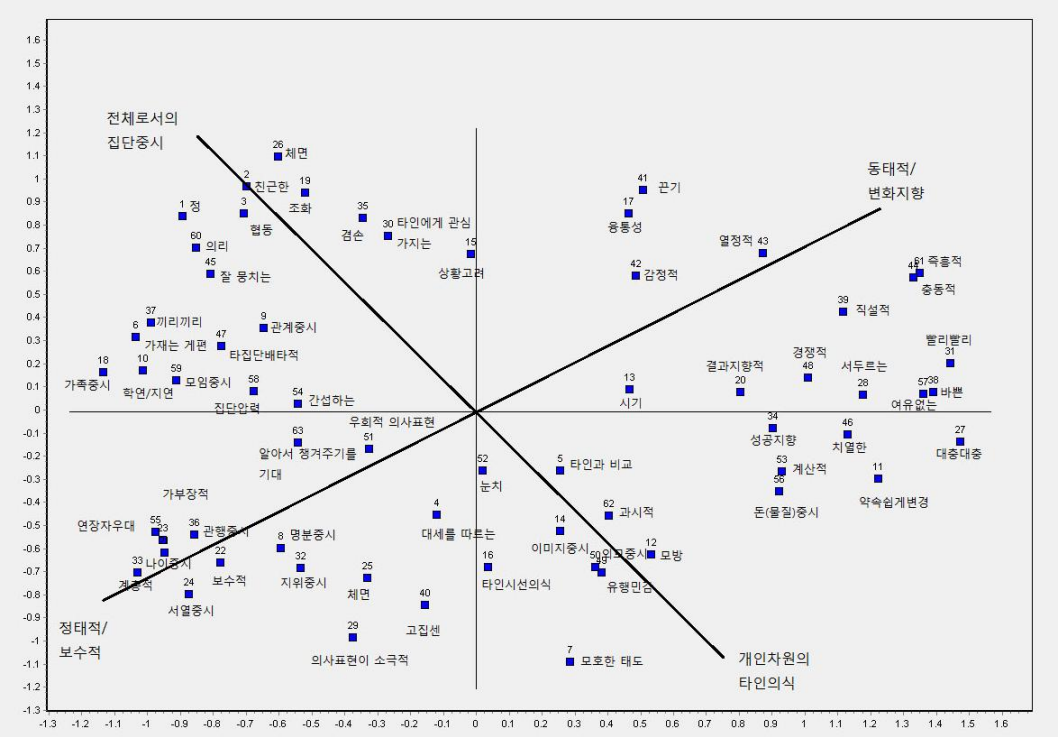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 63개 항목의 MDS 결과

종합토론을 거쳐 자유목록 분석을 통해 선정된 항목들 중 표현에 있어 중립성이 떨어지거나 지나치게 세부적 혹은 추상성이 강한 항목들은 생략하고 표현을 달리하여 수정하였다.[27] 그 결과 표 3의 63개 항목을 최종 선정하였다.

문화 항목 간의 구조: 다차원척도법 및 네트워크 분석

항목 간의 구조를 발견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다차원척도법(MDS)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MDS는 분석하는 항목들 간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를 밝히는데 유용한 기법으로 차원(축)은 2개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3개 이상은 평면상에 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일단 두 개의 차원으로 제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28]

27) 생략된 대표적인 항목들로는 '외국인 차별, 애국적, 외국인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이는 자유목록을 작성한 참여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 차원인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는'이라는 항목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집단주의'와 같은 항목은 그 차체가 포함하고 있는 추상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문헌과 심층면접 자료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모임(회식, 경조사, 동문회) 중시, 끼리끼리, 가제는 게 편' 등과 같은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28) MDS 분석결과는 항목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실제 이들 항목이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배열된 보이지 않는 축을 해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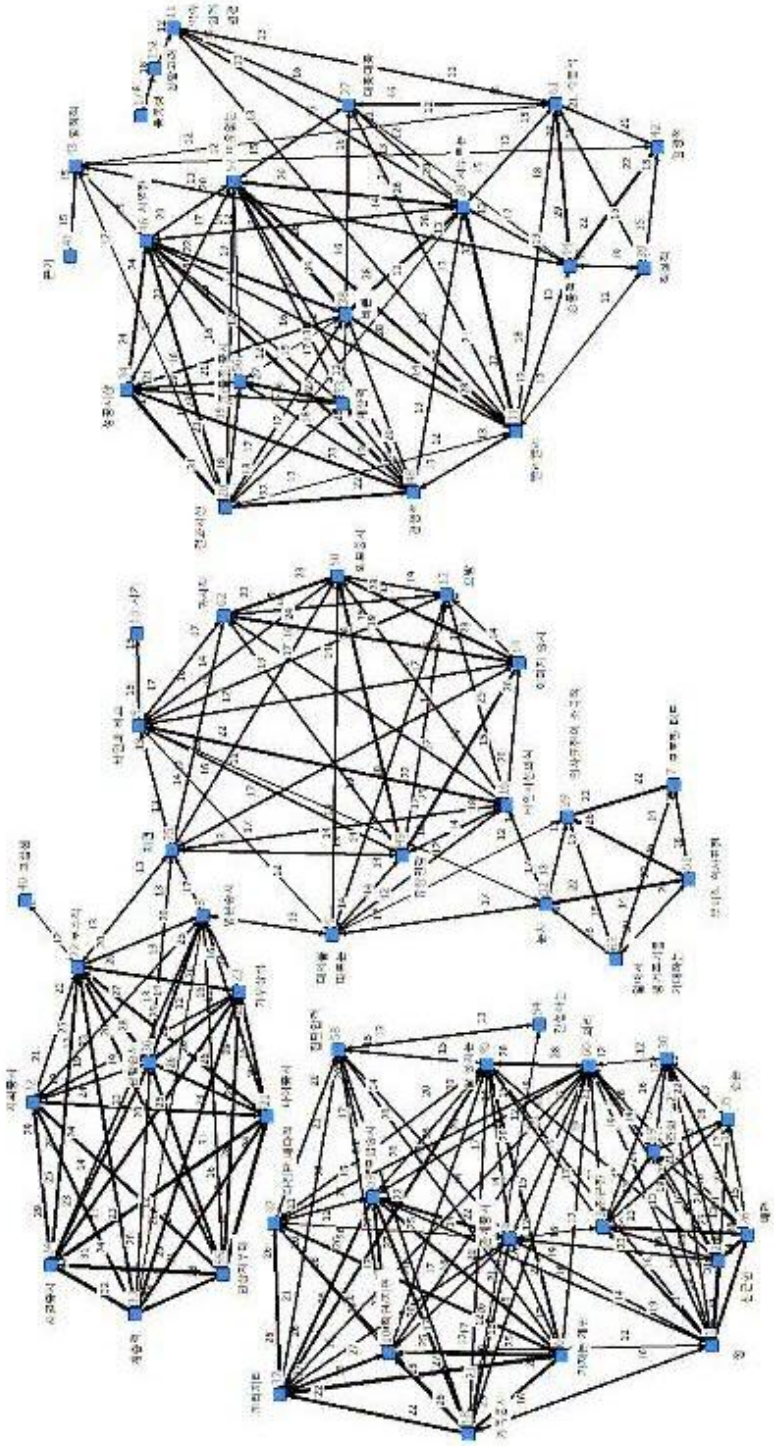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 63개 항목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 그림에서 항목과 항목을 잇는 선 위의 숫자는 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빈도이고(최대 37), 그림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빈도가 12 미만인 선을 생략한 것임. 항목과 항목의 거리는 추상적 개념 간의 거리를 상징하는 MDS와는 다르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편의적인 것임.

www.kci.go.kr

분석결과 모형은 그림 2와 같으며, 분석모형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스트레스(Stress)는 0.179이었다. 일반적으로 모형의 신뢰도는 스트레스가 0.380보다 낮으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Sturrock & Rocha, 2000), 본 분석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의 그래프를 4분면과 같이 각각 1(+,+), 2(−,+), 3(−,−), 4(+,−) 분면으로 보면 우상향 축을 기준으로 3사분면에 배치된 항목들은 서열중시, 계층적, 보수적, 관행 중시 등으로 '보수적이고 정태적인 특성'을, 1사분면에 배치된 즉흥적, 충동적, 열정적 등의 항목은 '변화지향적이고 동태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하향 축을 기준으로 보면 2사분면의 항목은 친근한, 협동, 조화, 잘 뭉치는 등으로 '전체로서의 집단을 중시'하는 항목이 많고, 4사분면에는 이미지 중시, 유행 민감, 외모중시 등의 항목으로 '타인을 의식하는 개인의 행태'에 관한 항목이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63개 항목에 대한 범주화를 시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NetDraw를 이용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파일분류의 응답자들이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한 항목들의 빈도수를 연결선 위에 숫자로 표시하여 준다. 예를 들어 그림 3에서 '서열중시'와 '계층적'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 32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참여자 중 32명의 사람이 이 두 항목을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NetDraw에서는 1 이상 모든 선을 그림에 굵기의 정도로 표시하지만 이 경우 그림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림 3은 본 연구의 파일분류 참여자(37명) 약 1/3 수준인 12명의 참여자가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한 빈도수로 제약한 것이다.

그림 3에 표시된 항목 간 네트워크를 보면 크게 다섯 개의 범주로 묶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연구자는 이들 범주를 각각 공적자아의식, 집단중시, 온정적 인간관계 중시, 권위의 위계성 중시, 그리고 결과중시로 명명하였으며, 이상의 5개 범주에 대한 개념화는 논의에서 정리하였다.

논 의

자아인식: 공적자아의식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발견된 하나의 묶음은 타인시선 의식, 타인과 비교, 이미지 중시, 외모 중시, 유행 민감, 대세를 따르는, 모방, 눈치, 과시적, 모호한 태도, 우회적 의사표현(돌려서 말하기), 의사표현이 소극적 등이다. 이들 특성의 공통점은 한국사회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는지를 의식한다는 점이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서,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 중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의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는 바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는가, 즉 자아개념(self-concept)에 대한 대표적인 질문이다. 자아개념은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위에 열거한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함의는 Mead(1934)와 Fenigstein et al.(1975)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Mead(1934)는 자아를 개인의 신념과 충동에 의해 행동하는 '주체로서의 나(I)'와 사회

www.kci.go.kr

에 적응하고 사회의 요구를 대표하는 '객체 혹은 대상으로서의 나(me)'로 구분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Mead는 자아를 개인이 속한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발달되어지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I와 me의 균형은 문화권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주체로서의 나(I)가 동양에서는 대상으로서의 나(me)가 더 강하다고 본다(김명진, 2012).

타인시선 의식, 타인과 비교 등을 포함한 이 범주에 속한 특성들은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역할과 그 사회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평가되고 받아들여지는지를 의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한국인의 자아개념에는 I보다 me가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인의 자아개념은 Mead의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 또는 Fenigstein et al.(1975)의 공적자아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적자아의식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 외모나 유행에 민감하다는 기존 연구결과(Froming & Carver, 1981; Lennon, Burns, Rowold, 1995; Schlenker & Weigold, 1990)를 볼 때 한국사회에서 개인은 공적자아의식을 강하게 형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림 3을 보면 타인시선 의식, 타인과 비교, 이미지 중시, 외모 중시, 유행 민감, 대세를 따르는, 과시적, 모방 등이 중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나머지 모호한 태도, 우회적 의사표현(돌려서 말하기), 의사표현이 소극적, 알아서 챙겨주기를 기대하는 등은 '눈치'를 중심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자가 일상의 사회생활에서 불특정의 타인을 상대로 공적자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후자는 공적자아의식이 특정인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또는 대인관계에서 발현되어 나타나는 현상적 특성이라 볼 수 있으며 이들을 연결하는 '눈치'는 양쪽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후자에 속하는 단어들의 경우 처음부터 명시적이고 분명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고 전체의 맥락 속에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담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국사회가 고맥락 사회(high context)의 문화적 특성(Hall, 1976)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인-집단 관계: 집단중시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은 '끼리끼리, 학연·지연, 가재는 게 편, 잘 뭉치는(단결), 가족(혈연)중시, 관계 중시, 집단 압력(peer pressure), 모임(회식, 경조사, 동문회 등) 중시, 타집단 배타적' 등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집단중시' 문화 특성이라 할 수 있고, 학연·지연·혈연을 중심으로 한 내집단의 유대성과 외집단의 배타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1차집단 내지 내집단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목표가 분명하고 이익을 중심으로 형성된 2차집단 내에서도 동문, 근무부서, 입사동기 등과 같은 의사적(擬似的) 1차집단에 참여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특성이 동문회, 회식, 경조사 등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 단어에 함축된 집단의 의미에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우리'로서의 소속감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차집단(primary group)과 내집단(in-group)은 각각 사회학자 Cooley(1909)와 Sumner(1906)가 처음 개념화한 것으로, 1차집단에서는 장기간

www.kci.go.kr

에 걸쳐 구성원들 간에 면대면 교류와 정서적 교감이 형성됨을 강조하고(Cooley, 1909), 내집단에서는 구성원들 간에 정체성을 공유하고 충성심이 형성되며 외집단에 대한 배타성이 강하다는 것을 강조한다(Sumner, 1906; Tajfel, 1969). 이러한 특성을 가진 한국사회의 집단중시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생활양식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집단 압력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사회에서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는 방식보다 남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익숙하고 이를 편하게 받아들이거나 그러한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집단압력은 단순히 회식이나 경조사 참여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시키기 위한 가족동반 모임이나 기관 차원의 이벤트 참여 그리고 조직의 관행을 수용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모임 참석이나 집단 동조 등에 대하여 가해지는 이러한 집단의 압력은 한국 사회에서 '동거의 중요성'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최상진, 2000). 박정열, 허태균, 최상진(2002), 최상진, 최인재(2002) 등의 연구에 의하면, 서양의 '내집단' 개념으로는 한국의 '우리성'과 같은 토착심리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한국 사람들의 경우 동거의 연속성과 역사성을 통해 '우리성'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즉, 한국 사람들의 경우 구성원들과의 동거 경험을 통해 우리성을 갖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집단 구성원들에게 모임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한국사회의 '집단중시'가 Triandis나 Hofstede의 '집단주의'의 한 구성요소이기는 하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Triandis와 Hofstede의 연구를 포함한 이후의 집단주의에 대한 실증연구를 보면 집단목표나 이익(interest)을 개인의 목표나 이익보다 우선시하고(Kim & Cho, 2011; Jackson et al., 2006; Triandis, 1989, 1995), 혼자 일하는 것보다 집단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Hofstede, 1980) 더 성과가 있다는(Triandis, 1989, 1995) 등의 측정문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집단중시 특성에는 기존의 집단주의 개념에서 강조하는 집단을 위해 개인의 목표나 이익을 희생시키는 부분(Jackson et al., 2006: 886) 못지않게 혼자의 힘보다는 집단의 힘에 의지하여 생활할 때 개인의 목표 달성이나 이익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실용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끼리끼리, 학연·지연·혈연, 가재는 게 편, 잘 뭉치는(단결), 관계 중시, 타집단 배타적 등의 단어는 개인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기보다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의 힘을 의지하여 개인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한국사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관계의 기반: 온정적 인간관계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 중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용어들은 '정(情), 친근한, 타인에게 관심 가지는, 배려(도와주는), 조화, 협동, 겸손'이다. 파일분류에서 이들 단어가 들어간 그룹의 경우 정이 일관되게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들 특성의 중심에는 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이들 표현이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범주명을 '온정적 인간관계'로 하였다. 그림 3을 보면 온정적 인

www.kci.go.kr

간관계 범주는 집단중시 범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의리'는 이들 두 범주의 속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범주에 속한 표현은 구성원들 간의 화합과 유대 그리고 정서기반의 인간관계를 중요한 특성으로 하는 1차집단 내지 내집단의 특성과도 유사하다. 또한 Hofstede(1980, 2001)의 남성성-여성성의 문화차원에서 여성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Hofstede는 남성성을 자기주장이 강하고 경쟁적인 특성으로 여성성을 겸손과 포용력 등의 부드러운 특성으로 분류하였는데, 한국은 남성성 지수 39로 조사대상 76개 국가 중에서 남성성 순위가 59위로서 상대적으로 여성성이 강한 나라로 분류하였다. 온정적 인간관계는 사람들의 관계형식을 개념화한 Clark & Mills(1979)의 공유적 관계에서도 비슷한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다. Clark & Mills(1979)는 편익(benefits)을 주고받는 거래방식을 기준으로 공유적 관계(communal relationship)와 교환적 관계(exchange relationship)를 구분하고, 전자는 상대의 욕구(needs)에 관심을 갖고 배려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며 도움을 받은 사람 역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부채(debt)를 느끼지 않는 관계로 이해한다.[29]

Clark & Mills(1979)가 개념화한 공유적 관계는 상호 간에 주고받는 거래의 균형 즉, 호혜성·공정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교환적 관계와는 다르게 상대방의 욕구 등 내면의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온정적 인간관계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다만 공유적 관계가 공유의 대상을 욕구나 행복 등 비금전적 편익까지 포함하긴 하지만 주로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온정적 인간관계는 정과 같은 정서적 교감과 친근, 관심, 겸손 등의 태도적 측면을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온정적 인간관계는 인내심(open-hearted patience), 예의(courtesy), 친절(kindness), 온화함(gentleness), 자애심(compassion)을 강조하는 중국문화조사의 인본성(human-heartedness: Leung, 2010)에 더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교환적 관계와 대립되는 시각에서 보는 공유적 관계와는 다르게, 온정적 인간관계는 교환적 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선행적 기반요소로 볼 수 있다. 즉 한국사회에서는 금전적 이해가 명확한 교환적 관계에 있어서도 사전에 상대방과 최소한의 친근함과 정서적 편안함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온정적 관계가 충족될 때 실질적인 교환관계가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30] 한편 한국사회에서 온정적 인간관계의 특성은 내집단 구성원들 간에 자주 나타나지만 모르는 사람과 처음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도 반영되어 나타난다.[31]

29) 공유적 관계의 대표적인 예는 가족 구성원, 친한 친구, 연인 간의 관계이다(Clark & Mills, 1979).

30) 실제 한국사회에서는 타인과 처음 대인관계를 맺을 때 '말을 텄다, 친해졌다, 혹은 통(通)한다' 등등의 표현을 쓰는 것과 같이 막연하게나마 상대방과의 친근한 느낌이나 상대방을 알아가고 있다는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종종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나이나 가족관계 또는 결혼여부를 묻는 것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무례한 행동으로 느낄 수 있으나,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서로의 어색함을 해소하고 '관계를 시작'하는 행위(ice breaker)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1) 외집단 구성원과의 관계에서는 때로 몰인정하고 무뚝뚝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사회의 특성에 대한 자유목

www.kci.go.kr

즉, 한국사회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나이나 가족 등의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나이나 결혼여부를 알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친근함을 느낄만한 공통분모를 찾아 관계를 시작하는데 가장 좋은 소재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사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과의 정서적 거리감을 줄이고 친밀감을 느끼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온정적 인간관계는 단순한 관계의 한 유형이라기보다는 한국사회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반이 되는 중요한 기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권위구조: 위계성 중시

파일분류 자료의 분석결과 발견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의 묶음은 '나이중시, 연장자 우대, 가부장적, 보수적, 관행 중시, 서열 중시, 계층적, 지위 중시, 명분 중시, 체면'이었다. 이 묶음의 특징은 한국사회의 권위구조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권위의 의미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또는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이라고 할 때(네이버 국어사전),[32] 이 범주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인정해 주는 요소 및 이를 반영한 행태적 특성이라 볼 수 있다.

한 사회의 권위에 대한 대표적인 분류는 Max Weber(1958)의 전통적(traditional), 카리스마적(charismatic), 합리적-법적(rational-legal) 권위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권위와 관련된 요소들 중에서 먼저 '나이중시, 연장자 우대, 가부장적, 보수적, 관행 중시' 등은 그 자체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따지기 이전에 한국의 역사와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조긍호, 2003: 151-154) 오랜 기간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온 '전통적' 권위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서열 중시, 계층적, 지위 중시'에서의 서열, 계층, 지위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귀속적인 권위요소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에 의해 획득한 합리적-법적 권위라 할 수 있다. 즉, 한국사회에는 전통적 권위와 합리적-법적 권위가 함께 공존하고, 사람들이 이들 권위요소에 가치를 부여하고 영향력의 차이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위계성을 중시하는 수직적 권위구조의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문화연구에서 사회의 권위구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개념은 Hofstede가 정의한 권력거리(power distance)와 Schwartz가 개념화한 위계성(hierarchy)이라 할 수 있다. Hofstede et al.(2010)는 권력거리를 사회단체나 조직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구성원이 권력의 불평등한 배분 상태를 기대하고 수용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권력거리가 큰 사회의 구성원은 위계질서 속에서 자신의 불평등한 위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권위가 높은 사람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Hofstede의 실증연구에서 한국은 권력거리의 점수가 60점이고 76개국 중에서

록 조사에서 '냉정하다', '무뚝뚝하다', '인사를 하지 않는다' 등의 표현을 찾아볼 수 있었다.

32) 전자의 예문으로 "권위가 있다, 권위가 서다, 가장의 권위를 세우다"를 후자의 예문으로는 "권위 있는 논문, 권위가 실추되다, 그분은 물리학 분야에서 권위가 있는 학자이다" 등을 들 수 있다(네이버 국어사전). 한편 권력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말한다(네이버 국어사전).

www.kci.go.kr

41-42위로 중간 정도의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Schwartz는 위계적 사회일수록 권위나 부(wealth) 등의 자원과 개인의 역할이 위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개인은 이러한 권위구조 속에서 자원과 역할의 불평등한 배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개인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규범을 기꺼이 준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위계적 사회에서는 사회적 권력, 권위, 겸손(humility), 부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존중되며 한국을 포함한 유교권 국가에서 이러한 특성이 강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Schwartz, 2004).

한국사회가 권위의 수직적 위계성을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점에서 Hofstede(1980), Hofstede et al.(2010)나 Schwartz(2004)의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지만, 한국사회가 불평등한 영향력의 차이를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즉, 한국에서는 자신의 나이, 지위, 서열 등의 권위가 현재의 시점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낮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노력을 통해 남들과 같거나 더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함으로써 권위의 수직적 구조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Hofstede et al.(2010: 63)는 수직적 권위구조를 받아들이면서 신분이나 지위 상승에 대한 욕구가 강하지 않은 수동적 태도를 권력거리가 큰 사회의 특성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오히려 수직적 권위구조가 사회구성원의 신분이나 지위 상승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33] 권위를 가진 지위를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공적자아의식과 결합하여 개개인은 이러한 사회적 지위 내지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4] 즉, 합법적 서열과 계층에 따른 권위 또는 영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35] 한국사회의 수직적 권위구조와 Hofstede가 말하는 수동적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권력거리가 큰 것과는 의미가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의 보상구조: 결과중시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 범주에 해당하는 용어들은 결과지향적, 성공 지향, 치열한, 경쟁적, 계산적, 돈(물질) 중시, 바쁜, 여유 없는, 서두르는(성급한), 빨리빨리, 대충대충 등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한 요소들과 융통성, 상황(정황) 고려, 즉흥적, 약속(계획) 쉽게 변경, 충동적, 직설적, 감정적, 열정적 등 네트워크의 주변에 위치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심 요소들은 결과를 중시하는 가치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행태적 특성이라 할 수 있고, 주변 요소들은 결과지향적인 행동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특성들이라 할 수 있기

33) 이는 앞에 설명한 공적자아의식의 특성처럼 타인의 시각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특성과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34) 이 부분은 경제학에서의 지위재(positional goods)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지위재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순위에 따라 그 가치가 정해지는 재화와 서비스라 할 수 있다(Hirsch, 1976).

35) 이 과정에서 그러한 권위요소를 획득한 과정에 대한 형평성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수 있다. 즉, 부당하게 획득한 권위, 실제보다 과도하게 행사되는 권위, 또는 노력을 통해 획득할 수 없는 권위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하고 오히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의식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www.kci.go.kr

때문에 이들을 모두 포함한 범주를 결과중시로 명명하였다.

한국사회의 결과중시 특성은 사회적 보상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보다는 성취한 결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데 있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빨리빨리 내지 다이나믹하다(역동적이다)는 표현이다. 실제 한국 사회는 짧은 기간에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루어냈고 최근 세계 스포츠나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36] 이러한 성과는 성공을 위한 경쟁과 열정 등의 노력이 뒷받침된 것이지만 그 근저에는 이러한 결과를 유·무형으로[37] 인정하고 대가가 따르는 사회적 보상구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처럼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보다는 얼마나 빨리 도착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고 보상된다는 것을 한국사회의 국민들이 믿고 그러한 보상구조에 따라 행동한다고 볼 수 있다.[38] 따라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치열하고 경쟁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여유가 없고 늘 바쁘게 사는 것으로 비춰지고, 또한 결과가 좋으면 과정상의 오류를 문제 삼지 않는 등의 모습에서 약속을 쉽게 변경하는 등의 부정적인 행태가 지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과중시'는 물질적 성공이나 경쟁 등의 특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Hofstede(1980), Hofstede et al.(2010)의 남성성-여성성 문화차원에서 남성성에 가까울 것이다. 여성성은 앞의 온정적 인간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한국사회의 경우 결과중시와 온정적 인간관계가 Hofstede가 개념화한 남성성-여성성 단일 차원의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적인 차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과를 보상하는 측면에서 결과중시는 Trompenaars & Hampden-Turner(1997)의 성취주의와 밀접한 관계성을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사회의 성취지향성은 일의 성취 그 자체에 의해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성취를 통해 획득하는 지위, 부, 명예 등의 귀속적(ascription)인 권위를 중시하기 때문에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결과를 보상하는 사회구조는 시간에 대한 신속함과 함께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융통성'을 필연적으로 가져오며, 한국사회는 이를 허용하고 중시하는 특성이 있다 할 것이다. 즉, 한국사회는 융통성을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으로 인정하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

36) 대표적으로 스포츠 분야에서 2012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순위로 5위를 기록하였고, 문화분야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빌보드 차트에 8주 간 2위에 오르는(2012년 11월 14일 기준) 등 K-pop의 세계적 인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37) 대표적인 유형의 보상은 돈과 같은 물질적 보상이라 할 수 있고, 무형의 보상은 승진, 지위상승, 명예 등 자신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8)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는 신문 논평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경향신문. "은메달 딴 것이 어찌 죄송한 일인가", 2008. 8. 13. 35면; 한겨레. "계속되는 대학의 공교육 흔들기", 2007. 3. 14; 동아일보. "표절은 범죄라는 인식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2007. 6. 6. 27면; 경향신문, "빨리빨리 병부터 고쳐야", 1995. 5. 31. 3면 등),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이 결과중시의 사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www.kci.go.kr

들인다. 원리원칙만을 내세우는 사람을 오히려 '고지식'하고 경직적이며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우에니시 아키라, 2006; 주경철 등, 2010; 최대권, 1997).

상황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문화적 특성은 Trompenaars의 보편주의-특수주의 차원에서 특수주의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특수주의는 내집단 구성원처럼 특별한 인간관계에 따라 원칙이나 규정의 적용이 달라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전근대적 특성으로 개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융통성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인간관계 때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실리의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상황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유연한 입장을 취한다는 의미가 강하다.[39]

한편 융통성에는 자연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자연은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이 적응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김명진, 2012; 박명석, 1979; 진교훈, 1998).[40] 자연은 총체적이고 복잡하여 인간의 능력으로 자연의 변화를 모두 예측하고 계획을 세워 대응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자연의 조건에 맞게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박명석, 1979). 따라서 예측 불가능하고 예외적인 상황과 사건을 불안해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때그때 주어진 환경에 즉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House et al.(2004)의 GLOBE 연구에서 미래지향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미래지향차원은 계획성과 즉흥성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연구에서 한국은 즉흥적인 성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한국사회는 어느 정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 계획적으로 준비하기보다는 상황에 직면하여 융통성 있게 즉시적으로 대응하는데 익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예측 가능한 것을 오히려 따분하고 재미없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중시의 주변요소에 해당하는 융통성, 상황(정황) 고려, 즉흥적, 약속(계획) 쉽게 변경, 충동적, 직설적, 감정적 등은 이러한 자연관과 시간관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39) 다만 융통성은 어디까지나 '그 허용 가능한 범위'와 '좋은 결과'가 지켜지고 창출되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특히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모호한 측면들이 있다. 또한 융통성을 발휘하는 시점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경우 주어진 상황에서 단시간 안에 최대의 효과와 그 이상의 성과를 올리며,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는 능하지만, 큰 그림을 가지고 장기간 꾸준히 원칙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할 과제에 있어서는 취약하다 할 수 있다.

40) Schwartz(2004)는 개인과 자연 또는 환경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지배와 조화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연을 도전, 지배, 정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에 순응, 적응, 조화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점에서 융통성은 조화의 또 다른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Trompenaars & Hampden-Turner (1997)의 선형(sequential) vs. 원형(synchronous)의 시간관으로 보면 문제대응방식의 융통성은 원형 시간관에 가까울 것이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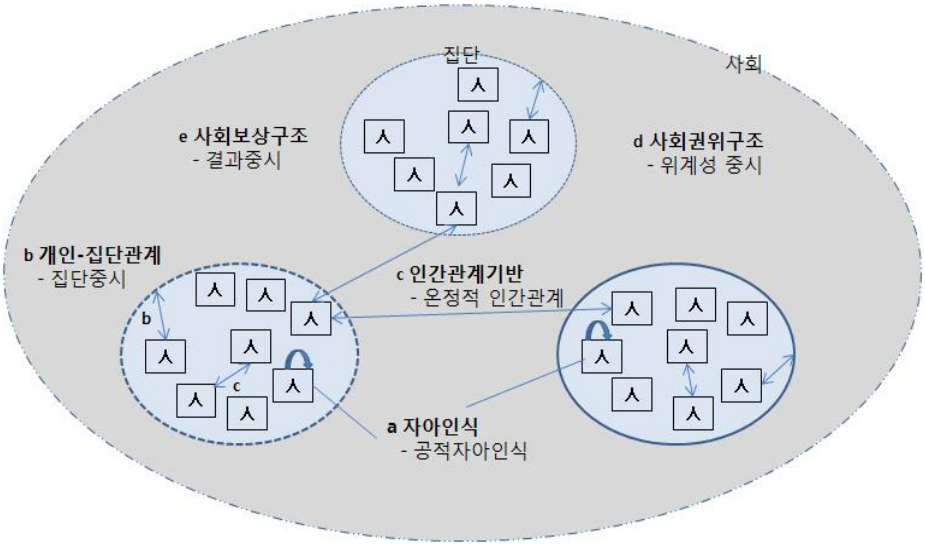

그림 4. 한국사회의 문화적 범주에 대한 도식적 이해

논의 종합

이상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는 공적자아의식, 집단중시, 온정적 인간관계, 위계성 중시, 결과중시의 범주는 각각 (a)개인 차원의 자아에 대한 인식, (b)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있어서 중심성의 위치, (c)개인과 개인 간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기반, 그리고 (d)사회 전체 시스템에서 권위가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e)개인이나 집단에게 무엇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가 제안한 다섯 범주는 한 사회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라 할 수 있다(그림 4). 다만 이들 범주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입체적인 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에서 대학을 선택할 때 전공보다 대학서열을 더 중시하는 현상은 공적 자아의식, 집단중시, 위계성 중시(수직적 권위구조), 결과중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결합시켜 설명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즉, 한국사회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이나 능력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대학의 사회적 평판과 권위를 의식하기 때문에 개인의 적성보다는 어느 대학에 입학하였는지에 더 관심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공이 아니라 대학의 순위를 평가하여 대학을 선택하고, 또한 졸업 이후까지 출신대학의 위상에 관심을 갖고 동문끼리는 특별한 정서적 친근감이 형성되는 온정적 인간관계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문화 차원의 보편적 적용을 주도하여온 Hofstede(1980, 2001), Schwartz(1992, 1994), Trompenaars & Hampden-Turner(1997), House et al.(2004) 등의 연구에서 제안한 문화 차원과 한국에 대한 차원별 실제 측정 점수가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인식을 바

www.kci.go.kr

탕으로, 한국문화의 특성에 대한 문헌 및 면접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5개의 한국문화 범주를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 특히 한국문화의 특성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해 외국인 43명으로부터 자유목록 방식으로 현시점에 적합한 시의성 있는 항목을 확보하였다. 또한 자유목록 자료에 대한 빈도 및 중요성 분석, 문화영역 최종 63개 항목에 대한 파일분류 실시 및 네트워크분석 등 객관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한국문화 연구에서 한계로 지적되었던 과학적 방법의 결여를(Kweon, 2003)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연역적으로 문화 차원을 도출하고 개념화한 기존 서양 학자들이 채택한 방식과는 다르게,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대표하는 단어나 표현을 생성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정제시키고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귀납적 방식을 채택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얻은 최종 5개 범주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공적자아의식, 집단중시, 온정적 인간관계, 위계성 중시(권위의 수직적 구조), 결과중시로 압축하여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들 5개 범주는 각각 사회를 구성하고 이해하는데 기본요소라 할 수 있는 개인,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개인과 집단의 관계, 그리고 사회 안에서 권위와 보상이 개인이나 집단에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들 각각의 차원에서 대응하는 개념으로는 사적자아의식, 교환적 인간관계, 개인중시, 평등주의, 과정중시를 제안할 수 있고, 이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영미국가의 문화적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41)]

귀납적으로 발견한 한국문화의 5개 범주가 서양 학자들이 제안한 기존의 문화차원과 차별성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앞의 발견과 논의에서 설명하였듯이, 서양 학자들의 권위주의(권력격차), 집단주의-개인주의, 여성성-남성성, 보편주의-특수주의, 성취주의-귀속주의 등의 문화 차원과는 많은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 즉, 차원의 이름에서는 기존 서양 학자들의 분류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이들 연구에서 제공하지 못한 한국문화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연구의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는 한국문화 영역을 대표하는 단어와 표현이 가치보다는 현상적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향후 각각의 범주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이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문화를 사회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수로 보고자 할 때는 문화를 현상보다는 가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범주를 측정하는 설문문항의 개발과 설문방식은 향후 연구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각 문화범주를 독립적·병렬적으로 서술하였는데 실제로 이들 범주는 상호간에 유기적인 영향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범주 간의 관계는 교육열, 지역갈등, 각종 정책실패 사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들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합하여 일반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41) 범주명에 대해서는 '집단중시'를 '우리성 중시'로, '온정적 인간관계'를 '정지향적 인간관계'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심사자의 제안이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여기서 발견한 범주들을 추후 한·중·일 비교 연구 등에 적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용어에 있어서도 중립적이고 대조를 이루는 것이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다.

www.kci.go.kr

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경동 (1993). 한국사회변동. 서울: 나남.

김경동 (2001).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 서울: 한국학술정보.

김경민, 박동건 (2011). 개인주의, 집단주의와 조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 내 구성원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7(4), 395-413.

김명진 (2012). EBS 다큐멘터리 동과 서 - 서로 다른 생각의 차원. 서울: 지식채널.

김유경 (2004). 새로운 문화차원에 의한 국가간 광고비교의 효용성 연구: Trompenaars - Turner의 문화차원을 중심으로. 광고연구, 64, 35-59.

김혜진 (2012). 개인주의, 집단주의, 조직시민행동, 정서적 몰입, 이직 의도, 조절효과. 인적자원관리연구, 17(4), 47-69.

박명석 (1979). 동과서 - 그 의식구조의 차이. 서울: 탐구당.

박정열, 허태균, 최상진 (2002). 사회적 범주과정의 심리적 세분화: 내집단 속의 우리와 우리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1), 25-44.

백완기 (1991). 한국의 행정문화.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송호근 (2003).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세대, 그 갈등과 조화와 미학.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심재명 (2007). 문화합의분석: 새로운 조사방법에 대한 연구. 관광학연구, 31(1), 137-158.

우에니시 아키라, 명성현(역) (2006). 골치 아픈 상대 다스리는 심리학. 서울: 팜파스.

유성경, 유정이 (2000).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과 상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9-32.

윤상연, 서신화, 김현정, 허태균 (2013). 인지부조화의 발생에서 문화 차이의 의미: 태도 중요도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1), 69-86.

정수복 (2007).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당연의 세계 낯설게 보기. 서울: 생각의 나무.

조긍호 (2003). 한국인 이해의 틀. 서울: 나남출판.

주경철, 김민수, 이 근, 장경렬, 정호근 (2010). 세상을 보는 눈. 서울: 이슈투데이.

진교훈 (1998). 한국인의 전통적 문화생활에 나타난 자연관. 철학과 현상학 연구, 10, 205-230.

찐언췌 (2000).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서울: 우석출판사.

차민정, 박소영, 송현주, 노연희 (2012). 집단주의 문화가 청년실업에 대한 불안 지각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1), 27-51.

최대권 (1997). 원칙의 사람과 원만한 사람. 현상과 인식, 72, 123-148.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중앙대학교출판부.

최상진, 최인재 (2002). 한국인의 문화 심리적 특성이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情), 우리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55-71.

최재석 (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3판). 서울: 현암사.

Borgatti, S. P. (1996). *ANTHROPAC 4.0 reference*

www.kci.go.kr

manual. Natick, MA: Analytic Technologies.

Chavez, L. R., F., Hubbell, A., McMullin, J. M., Martinez, R. G., & Mishra, S. I. (1995). Structure and meaning in models of breast and cervical cancer risk factors: a comparison of perceptions among latinas, anglo women, and physicians. *Medical Anthropology Quarterly, 9,* 40-74.

Clark, M. S., & Mills, J. (1979). Interpersonal attraction in exchange and commun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2-24.

Cooley, C. H. (1909). *Social Organization: A Study of the Larger Mind*,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D'Andrade, R. G. (1981). The cultural *part of cognition. Cognitive Science, 5,* 179-195.

Douglas, M. (1970). *Natural Symbols: explorations in cosmology*. New York: Pantheon Books.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22-527.

Froming, W. J., & Carver, C. S. (1981). Divergent influences of private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in a compliance paradig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5,* 159-171.

Gooderham, P., & Nordhaug, O. (2001). Are cultural differences in europe on the decline? *European Business Forum*.

Hall, E. T. (1976). *Beyond Culture*, New York: Anchor Books.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

Hofstede, G.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Hofstede, G., & Hofstede, G. J. (2005).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2nd Ed, New York: McGraw-Hill.

Hofstede, G., Hofstede, G. J., & Minkov, M. (2010).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Revised and expanded 3rd Ed, New York: McGraw-Hill.

Hooghiemstra, R. B. H. (2003). *The construction of reality: cultural differences in self-serving behaviour in accounting narratives*. ERIM, Rotterdam.

Horowitz, D. (2007). *Applying cultural consensus analysis to marketing,*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House, R. J., Paul, J. H., Mansour, J., Peter, W. D., & Vipin, G. (2004). *Culture, leadership, and organizations: the globe study of 62 societies,* London: Sage Publications.

Jackson, C. L., Colquitt, J. A., Wesson, M. J., & Zapata-Phelan, C. P. (2006). Psychological collectivism: a measurement validation and linkage to group member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1(4),* 884-899.

Keller, J., & Loewenstein, J. (2011). The cultural category of cooperation: a cultural consensus model analysis for china and the US. *Organization Science, 22(2),* 299-319.

Kim, K., & Cho, B. (2011). Development of an 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 revisited: a korean sample. *Psychological Reports, 108(2),*

www.kci.go.kr

393-401.

Kluckhohn, F., & Strodtbeck, F. (1961). *Variations in value orientations*, Evanston, IL: Row and Peterson.

Kweon, S. (2003). Popular discourses on korean culture: from the late 1980s to the present. *Korea Journal, 43(1),* 32-57.

Lennon, S., Burns, L., & Rowold, K. L. (1995). Dress and human behavior research: sampling subjects and consequences for statistic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3(4),* 262-272.

Leung, M. (2010). The effects of chinese values(Confucian work dynamism and human-heartedness) on students' achievement goals and learning strategies. Australian Association for Research in Education, AARE 2010 International Education Research Conference, Melbourne.

Magana, J. R., Burton, M., & Ferreira-Pinto, J. (1995). Occupational cognition in three nations. *Journal of Quantitative Anthropology, 5,* 149-168.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Edited by Charles W. Morri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arsons, P., & Shils, E. (Eds.) (1951).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New York: Harper & Row.

Roberts, K. H., & Boyacigiller, N. A. (1984). Cross national organizational research: the grasp of the blind men.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 6. JAI Press: Greenwich, CT.

Romney, A. K., Weller, S. A., & Batchelder, W. H. (1986). Culture as consensus: A theory of culture and informant accuracy. *American Anthropologist, 88,* 313-338.

Schlenker, B. R., & Weigold, M. F. (1990). Self-consciousness and self-presentation: Being autonomous versus appearing autonomo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820-828.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y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M.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1-65, New York: Academic Press.

Schwartz, S. H. (1994). Are there universal aspect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Journal of Social Issues, 50,* 19-45.

Schwartz, S. H. (2004). Mapping and interpreting cultural differences around the world. In H. Vinken, J. Soeters, & P. Ester (Ed.), *Comparing Cultures: Dimensions of culture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Leiden, The Netherlands: Brill.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eesearch. *The Journal of Comparative Social Science, 29,* 240-275.

Sturrock, K., & Rocha, J. (2000). A multidimensional scaling stress evaluation table. *Field Methods, 12,* 49-60.

Sumner, W. G. (1906). *Folkways*. Boston: Ginn.

Tajfel, H. (1969). Cognitive aspects of p*rejudice. Journal of Social Issues, 25,* 79-97.

Triandis, H. C. (1989). A strategy for cross-cultural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In J. P.

www.kci.go.kr

Forgas & J. M. Innes (Eds.), *Recent advances in social psycholog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pp.491-499). North Holland, the Netherlands: Elsevier Science.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Triandis, H. C. (2004). The many dimensions of cultur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8(1), 88-93.

Trompenaars, F., & Hampden-Turner, C. (1997). *Riding the waves of culture: understanding diversity in global business*, 2nd ed., New York: McGraw-Hill.

Trompenaars, F., & Hampden-Turner, C. (2001). *21 leaders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McGraw-Hill.

Yau, Oliver H. M. (1994). *Consumer behaviour in china: customer satisfaction and cultural values*, London: Routledge.

Weber, M. (1958). The three types of legitimate rule. *Berkeley Publications in Society and Institutions*, 4(1), 1-11. Translated by Hans Gerth.

Weller, S. C. (2007). Cultural consensus theory: applications and frequently asked questions. *Field Methods*, 19, 339-368.

Weller, S. C., & Romney, A. K. (1988). *Systematic data collection.* Newbury Park, CA: Sage.

논문 투고일 : 2013. 06. 03
1 차 심사일 : 2013. 07. 12
게재 확정일 : 2013. 08. 16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13, Vol. 19, No. 3, 457~485.

A Study on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ety: Discovering Its Categories Using the Cultural Consensus Model

Minbong You **Hyungin Shim**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discover the dimensions of Korean culture, with the presumption that the cross-cultural studies(Hofstede, 1980, 1997; Schwartz, 1992, 1994; Trompenaars and Hampden-Turner, 1997; House et al., 2004) have limitation to explain non-western culture including Korean culture. Even though there are some Korean cultural studies, they used heuristic approaches applying the authors' experiences and intuitions. This study applied the Cultural Consensus Theory to overcome the previous studies' shortcomings and to discover the dimensions that can be empirically proved by data. In specific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 used content analysis, did frequency analysis, and applied pilesort technique,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network analysis. As a result, this study obtained five categories: public self-consciousness, group-focused orientation, affective human relations, hierarchical culture, and result-orientation. It is expected that these dimensions can be used as important variables that may explain Korean social phenomena.

Key words : Korean culture, cultural consensus model, freelist, pilesort

www.kci.go.kr